

예술과 만남

10

2016 October + November vol. 122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1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ver Model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Focus

04 / Focus Image

경기필하모닉-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환상의 마력이 지배하는 〈한여름 밤의 꿈〉

06 / Focus Column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10 / Focus Talk

멘델스존의 음악으로 나누는
지휘봉과 토슈즈의 교감



Stage

16 / 주목 이 공연 I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20 / 주목 이 공연 II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22 / 주목 이 공연 III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4 / 주목 이 공연 IV

경기-삼성 Dream 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26 / 과감하게 골라보기

28 /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경기필하모닉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29 /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19금 민요 몰래한 이야기

31 /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I

경기도립무용단 미국 공연



Interview

32 / GGAC가 만난 사람 I

음악, 연기, 인지도 3박자 갖춘
달콤한 배우 이아현

34 / GGAC가 만난 사람 II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주인공
'마이클 리'에 홀릭되다



Story

38 / 예술 수작을 걸다 I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42 / 예술 수작을 걸다 II
희곡과 음악, 그 영원한 콜라베이션

46 / 예술과 인문학
간송문화전을 떠나보내며

50 / 예술 즐기기



G.Talk

51 / 예술 더하기

52 / GGAC 뉴스

54 / 공연일정



예술과 만남

10

2016 October + November vol. 122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11

Editor's Letter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무더위를 머금은 습한 바람
대신에 선선함을 품은 청량한 바람이
스칩니다. 좀처럼 껴일 것 같지 않던
한여름의 기세도 시간이 흘러 때가 되니
가을에게 제 자리를 내어주네요.

5권의 <예술과 만남>이 세상에 나오면서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만났습니다. 열한 달 동안 이어진 독자님과 저희의 만남이 어디 보통 인연인가요. 지금 저희 책을 훑어보시면 작은 간지가 보이실 겁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란 딱딱한 제목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어떤 독자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책자에 담긴 정보나 소식은 유익한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건 아닌지 독자님께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물론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나 QR코드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펼 독자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호의 문을 엽니다.

발행인 | 정재훈
편집인 | 정재훈
편집장 | 최현희
기획 · 취재 · 편집 | 조신애
발행처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Tel 031-230-3200 / Fax 031-230-3469
기획 · 사진 · 디자인 | 반디컴



경기필하모닉-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환상의 마력이 지배하는 <한여름 밤의 꿈>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걸작을
멘델스존의 음악으로 만난다.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요한 하인리히 뢰슬리 / 당나귀 머리의 보듬을 어루만지는 요정여왕 티타니아

성시연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셰익스피어 기념해를 맞아,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전곡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정혜욱과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의 노래, 배우 김석훈과 이아현의 내레이션, 발레리나 김주원과 발레리노 윤태수의 무용까지 곁들여져 셰익스피어 희극과 멘델스존 음악의 매력을 한층 풍부하고 아름답게 되살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앞서 이 작품의 유래와 내용을 알아본다.



멘델스존
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



윌리엄 블레이크 / 춤추는 요정들과 함께 있는 오베론과 티타니아와 펍

은은한 달빛이 내리 비치는 한여름 밤의 숲 속, 그 훈훈한 정취를 배경으로 연인들과 요정들이 엮어가는 사랑이야기... 올해 서거 400주기를 맞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은 성 요한 축일의 전야에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환상과 유머로 가득한 이야기이다. '성 요한 축일'이란 성경 속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알려진 날인데, 유럽에는 이 무렵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며 '하지 축제'를 벌이는 풍습이 있다. 아울러 요한 축일의 전야에는 갖가지 요괴들이 출몰하여 기이한 사건을 일으킨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셰익스피어는 바로 그러한 전설에 착안하여 인간세계와 요정세계가 교감하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매력적인 희극

셰익스피어가 <한여름 밤의 꿈>을 집필한 시기는 1594년에서 1595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테세우스 이야기, 전설 속의 요정 이야기, 중세 영국의 민간설화 등을 참고하되 특유의 상상력과 구성력을 십분 발휘하여 이 희극을 썼다. 그의 작품들에는 유령, 마녀, 요정 같은 초현실적 존재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중에서도 요정들이 사는 마법의 숲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여름 밤의 꿈>은 그의 시적 상상력이 최고조에 이른 작품으로 꼽힌다. 오늘날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모든 극 가운데 가장 환상적이고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작품이 냉대를 받던 시기도 있었다. 온갖 요정과 마법이 난무하는 희극이라는 점 때문에 이성과 합리주의를 강조하던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상과 초자연의 세계를 추구하는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극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의 하나로 떠올랐고, 다른 예술 장르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러 낭만주의 화가들이 이 작품에 매료되어 그 어떤 셰익스피어 작품보다 많은 그림을 그렸고, 작곡가들 중에서는 독일의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이 작품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절묘하게 포착해낸 음악을 썼다.

멘델스존의 천재적인 음악

멘델스존이 〈한여름 밤의 꿈〉을 처음 접한 것은 1826년 여름이었다. 당시 17세의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는 누이 파니와 함께 쉴레겔과 티크의 독일어 번역본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여름 밤의 꿈〉에 푹 빠져들었던 모양이다. 그 로맨틱한 환상의 세계에 흠뻑 매료된 소년 멘델스존은 그 감흥을 한 편의 음악에 담아내게 되는데, 그 음악이 유명한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이다. 이 서곡은 일단 피아노 연탄용으로 완성되었고, 얼마 후 관현악용으로 개작되었다. 멘델스존은 14세부터 작곡을 시작하여 15세에 첫 교향곡을 썼을 정도로 조숙한 천재였다. 따라서 이 서곡은 단순한 습작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싱싱하고 힘차게 생동하는 천재성의 반짝임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과중한 업무와 엄격한 자기 검열에 시달렸던 성년의 멘델스존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1842년, 이번에는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그에게 〈한여름 밤의 꿈〉의 연극 상연을 위한 음악을 의뢰했다. 그 무렵 멘델스존은 베를린 왕립 예술 아카데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왕의 명을 받들어 연극의 주요 장면들에 붙일 음악 14곡을 새로 작곡했다.

기존의 서곡과 함께 1843년 10월 14일 포츠담 궁전에서 열린 연극 공연에서 초연된 이 14편의 악곡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명한 ‘결혼 행진곡’을 비롯하여 콘서트에서 종종 발췌 연주되는 스케르초, 간주곡, 야상곡과 같은 순수 기악곡이 있는가 하면, 매력적인 ‘요정의 자장가(2중창)’를 포함하여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에 기초한 노래와 멜로드라마도 있다. 비록 이 14곡과 서곡 사이에는 오랜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멘델스존이 소년 시절의 작품을 계속 환기하면서 작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 일관된 작풍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윌리엄 올스턴 / 허미아와 헬레나

환상으로 채색된 러브스토리

이제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무대는 아테네와 인근의 숲인데, 그 속에서 4개의 플롯이 얹히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첫 번째 플롯은 아테네의 공작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식이고, 두 번째 플롯은 요정들의 왕과 여왕인 오베론과 티타니아의 부부싸움이다. 그 사이에 아테네의 젊은이들인 라이산더와 허미아, 디미트리어스와 헬레네의 얽히고설킨 연애담이 끼어들고, 아둔한 보탬을 비롯한 아테네 직공들이 벌이는 촌극도 등장한다.

라이산더와 허미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허미아의 아버지는 딸이 디미트리어스라는 젊은이와 결혼하기를 강요한다. 원래 디미트리어스와 사랑하던 사이였던 헬레나는 변심한 디미트리어스 때문에 상심에 빠져 있다. 허미아의 아버지는 영주 테세우스를 찾아가 판결을 구하는데,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테네의 법에 따라 허미아는 아버지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라이산더와 허미아는 야반도주를 결심하는데, 이 두 사람과 이들을 뒤쫓아온 디미트리어스, 그리고 디미트리어스를 따라온 헬레나가 한밤중에 아테네 근처의 숲에서 밤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 숲은 요정들이 사는 마법의 숲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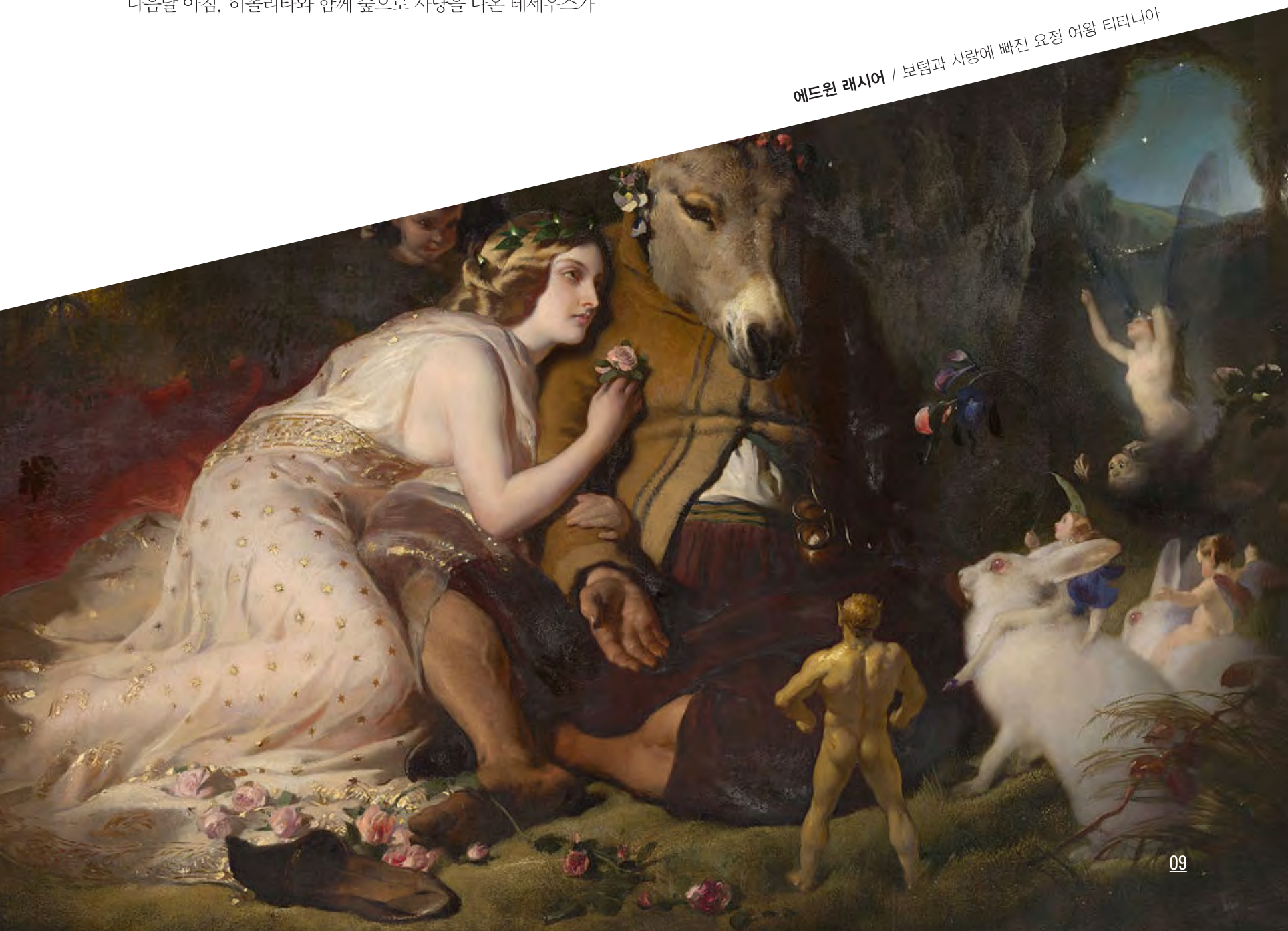
요정들의 왕인 오베론은 여왕 티타니아가 새로 들인 시동을

애지중지하자 시샘한 나머지 여왕을 꿀탕 먹이기로 한다. 그는 장난꾸러기 요정 퍼크를 시켜 티타니아가 잠든 사이 그녀의 눈에 마법의 묘약을 넣게 하는데, 그것은 잠에서 깨어 처음 본 것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효능이 있는 묘약이었다. 티타니아는 퍼크가 장난삼아 당나귀 머리로 둔갑시킨 아둔하고 천한 직공 보텀을 사랑하게 된다.

한편 오베론은 숲 속에서 헤매고 있는 네 젊은이의 엇갈린 관계를 도와주기로 하는데, 퍼크의 실수로 네 젊은이의 관계는 더욱 꼬여 뒤죽박죽이 된다. 결국 오베론의 개입으로 상황은 정리되어 라이샌더는 헤미아에게 돌아가고 디미트리어스는 다시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다. 또 당나귀 머리를 한 보텀과 사랑에 빠진 티타니아를 조롱하던 오베론은 원하던 시동을 넘겨받은 후 그녀에게 걸었던 마법을 풀어주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다음날 아침, 히폴리타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온 테세우스가

네 젊은이를 발견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테세우스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을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간밤에 자신들이 겪었던 꿈 이야기도 들려준다. 테세우스와 히폴리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며 단순한 꿈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열병이 만들어낸 환상으로 여긴다. 마침내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그리고 두 쌍의 연인들의 합동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된다. 피로연에서는 인간으로 돌아온 보텀까지 합류한 직공들의 어설픈 연극 공연이 펼쳐진다. <피라무스와 티스베>라는 제목의 이 극중극은 부모의 반대로 도망을 치다 죽음을 맞이하는 연인들의 비극적인 내용으로, 고대 신화에 기초하며 흔히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세 쌍의 신혼부부가 초야를 치르러 잠자리에 들면 요정들이 나타나 그들의 백년해로와 다산을 기원하며 막이 내린다.

에드윈 래시어 / 보텀과 사랑에 빠진 요정 여왕 티타니아





멘델스존의 음악으로 나누는 지휘봉과 토슈즈의 교감

글 · 진행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알립니다.”

주례사의 선언과 동시에 경쾌하고 화려한 음악이 터져 나온다. 요즘은 다양한 음악이 연주되지만, 10년 전만 해도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신랑신부가 퇴장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동일했다. 이른바 ‘축혼 행진곡’이라 불린 이 음악의 본래 출처는 멘델스존 작곡의 〈한여름 밤의 꿈〉이다.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극음악에서도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혼식 장면에서 바로 이 경쾌한 축혼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축혼 행진곡’에 비해 〈한여름 밤의 꿈〉 전곡을 라이브로 듣기란 한국에서 쉽지 않다. 독창과 합창,

경기필하모닉 지휘자 성시연 & 발레리나 김주원

그리고 음악 사이사이의 내레이터까지 완벽하게 갖춘 온전한 형태가 연주되기보다는 보통은 극음악에 앞서 작곡된 서곡, 혹은 극음악을 간추린 모음곡이 흔히 연주된다. 콘서트 공연에 내레이터를 삽입하는 것은 아직은 국내 클래식 공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전이 아니다. 오는 10월 21일(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22일(롯데 콘서트홀) 양일에 걸쳐 펼쳐지는 경기필의 셰익스피어 서거 4백 주년 기념 공연에는 그런데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슈가 추가된다.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 김주원의 춤을 볼 수 있다. 근래 보기 드문 이색적인 무대를 준비 중인 김주원과 경기필 상임지휘자 성시연을 함께 만나 보았다.





춤과 함께 하는 콘서트는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인데, 예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성시연: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겨울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에서 연주한 제야 음악회에서도 시도했습니다. 그때는 클래식 음악은 아니고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을 연주할 때 김주원씨가 춤을 췄죠. 약 5분 정도의 짧은 무대였는데 임팩트가 엄청나서 결과적으로 공연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지휘를 하면서 돌아보며 저 또한 매료되어 빠져들 정도였죠. 〈한여름 밤의 꿈〉을 기획하면서 여러 요정들의 테마를 춤이라는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김주원씨가 떠오르더군요.

발레와 함께 공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처음이시죠?

성시연: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휘자에게 부담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라이브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템포를 잘 조절해야 하거든요. 댄서가 편안하게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동작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템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휘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연 당일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리듬이 달라지죠. 그걸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김주원 선생님은 무대에서 여러 지휘자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김주원: 성시연 선생님 말씀대로 지휘자들마다 개성이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공연 내내 무용수를 절대로 안 쳐다보시는데 그런 날은 참 공연을 힘들게 하죠. 하지만 저는 대체로 녹음된 음악보다 지휘자가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때 훨씬 더 좋은 공연을 해왔어요. 표현이 훨씬 감성적이고 또 섬세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지휘자와의 교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파트너와 2인무를 추는 것 같은
호흡을 지휘자와 느끼곤 합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댄서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해요. 무엇보다
지휘자가 지적해주는 여러 음악적인 부분들이 춤을 추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번 공연은 무대 세트가 있는 극장이 아닌
콘서트홀인데요, 춤을 추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김주원: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건 분명 불편한
점이긴 해요. 조명도 없고 무대 장치들의 도움을 하나도 기대할
수 없죠. 게다가 극장과 달리 뒤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계시니
춤을 추면서 앞의 관객뿐 아니라 뒤통수까지 의식하게 돼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한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니 더 많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뒤통수를 의식하셔야 한다니, 그건 지휘자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성시연: 엇, 저는 의식 안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잔소리를 듣곤
해요. 바지가 낀다는 농담도 듣고요 (웃음).

**〈한여름 밤의 꿈〉은 대중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19세기 작곡된 음악인데요, 지금
관객들이 보기에도 즐거울까요?**

성시연: 내레이터가 작품 내용을 얼마나 전달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음악은 거들 뿐이죠. 대중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뛰어난 내레이터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배우 김석훈과 이아현이 내레이션을 맡게됐다.)





**두 분은 드라마틱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는데요.
멘델스존 음악은 두 분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성시연: 학생 때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을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연주를 듣고 ‘가벼운 아침식사를 기대하고 왔다가 스테이크를 먹고 가는 기분’이라 말씀하셔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멘델스존의 음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어린 미소녀 이미지의 초상화를 참고하라고 해요. 저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이 철철 넘치는 곡을 즐겨 연주하는데 멘델스존은 어쩐지 나이트가운 하나 딱 걸치고 있는 듯한 불편함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경기필이랑

멘델스존의 〈엘리아〉를 연주하고 이 사람이 가진 감수성이 반드시 가볍고 여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여름 밤의 꿈〉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려 네 쌍의 커플이 등장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걸 지극히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할 말은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것이 바로 멘델스존의 천재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공연에서는 그런 다양한 시각과 아기자기한 극적 요소들을 최대한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김주원: 제게도 멘델스존 음악이 쉽지 않아요. 쇼팽이나 리스트, 차이콥스키 음악은 드라마가 드러나 있어 표현이 익숙한데 멘델스존의 음악은 무용수 입장에서 다소 건조하게 들리거든요.



스토리라인도 없고, 감정의 기승전결이 불분명하죠. 한데 〈한여름 밤의 꿈〉은 기승전결이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독특한 감정선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멘텔스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로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거죠.

직접 안무를 하시나요?

김주원: 아뇨, 유해웅이라는 톡톡 튀고 모던한 느낌의 젊은 안무가를 섭외했어요. 그리고 윤전일이라는 발레리노가 저와 함께 춤을 춰요. 스토리라인이 따로 없어서 여러 창의적인 시도가 기대되는 안무예요.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전향하는 사람도 많은데.

김주원: 저는 그냥 댄서로 태어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니 초점이 점점 정확해지는 걸 느껴요. 내년이 데뷔 20주년인데 살아온 경험과 감성, 몸 상태에 맞춰서 춤이 바뀌더군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하지 하는 욕심보다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최선이란 생각을 합니다.

성시연 선생님도 경기필과 2년 넘게 동고동락하셨죠.

처음 음악감독을 맡은 거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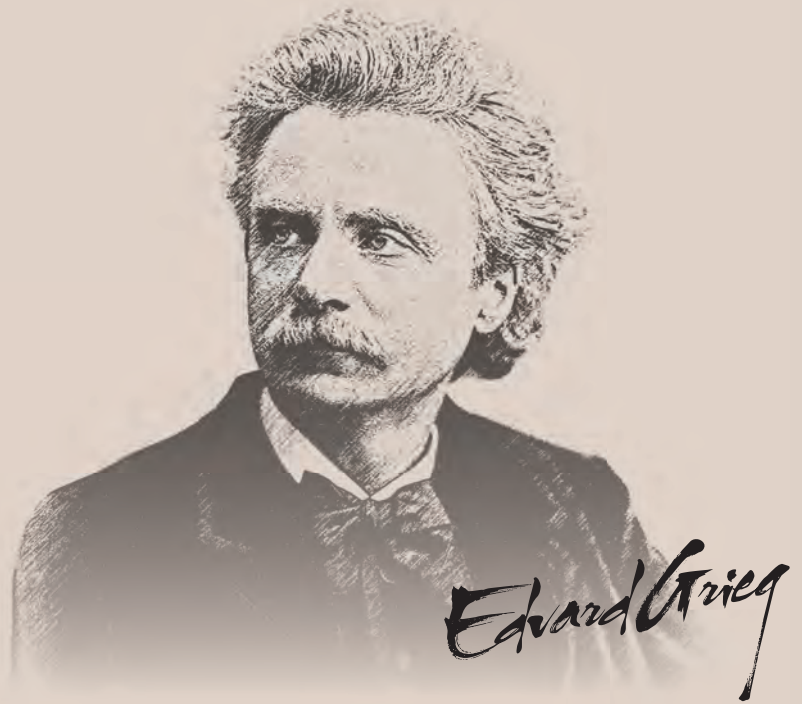
성시연: 지휘자로서 한 악단을 책임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 이끌어 본 거죠. 때문에 제 개인의 영달보다 악단과 제가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기필은 예술적으로 원석에 가까운 악단이에요. 다듬어야 할 것도 많지만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열려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말러처럼 어려운 대편성 교향곡에서부터 대중적인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악단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경기필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한여름 밤의 꿈〉도 경기필의 잠재력과 지평을 여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모로코 해변으로 간 '소금',
국악으로 듣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베토벤은 고전주의 정점에 도달한 작곡가인 동시에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으로 새로운 낭만시대를 열었다. 반 고흐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은 불변의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변하는 순간적 인상을 그리는 것이라 재정의했다. 이렇듯 예술은 통념과 고정 관념을 깨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왔고, 이런 파괴로부터 새로운 예술의 역사가 쓰여왔다. 이에 오늘날 가장 변화무쌍한 국악계를 주목해야 한다.





국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서양 오케스트라의 형식을 빌린 국악관현악이 생긴지 50여 년, 경기도립국악단이 창단된 지 20주년이 되는 올해 최상화 예술단장은 커밍아웃을 선언했다. “국악기가 내 딸과 우리 아들이 부르는 노래 음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연주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의 직무유기입니다.” 길게는 천년, 몇 백 년 넘게 원형을 유지한 국악기는 음악의 도구로써 각 시대의 음악을 소화했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과 미래에도 통할까.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박제화 된 음악으로 남을 것인지, 시대를 관통해 현대인의 감성에 새로운 느낌으로 스며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최상화 예술단장은 ‘치세지음(治世之音)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악이 갖고 있던 음역과 조성 변화의 한계, 제한된 연주 테크닉에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천년의 소리, 일곱 빛깔로 피우다〉 공연은 치세지음 프로젝트의 서막을 여는 자리였다. 위촉된 7명의 작곡가에게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리되 다섯 번 이상의 조성 변화가 요구됐다. 조성의 변화가 자유롭게 못한 국악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기도립국악단원들은 각 악기별로 새로운 테크닉과 연주 역량 강화를 위해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굵은 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했다.

단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무대, 그 안에서 세계의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보편적인 국악관현악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한발 더 나가 그리그의 대표 작품인 <페르귄트 모음곡>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페르귄트 모음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입니다. 그렇기에 국악관현악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사운드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이끄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그가 사용한 음악적 표현들을 국악기로 구현함으로써 익숙한 국악 어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테크닉과 연주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최상화 예술단장은 국악기로 서양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이런 논쟁 속에서 민족음악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60년 전 중국, 일본, 북한에 있었고 그 논란으로부터 해방된 이들의 민족음악은 대중을 껴안고 세계 음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안 품어지는 것은 악기 개발을 통해 나아갔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시도, 무모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좀 더 밝은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비올리스트인 ‘페렌체 가보’에게 지휘를 맡겼다. 페렌체 가보는 오페라와 20세기 오케스트라 작품 및 현대 음악에 대한 해석이 돋보이는 지휘자다. 중국 민족악단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동양적 사운드에 관심이 많은 페렌체 가보가 경기도립국악단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크다. 서양 지휘자에게서 새롭게 발견될 우리 국악의 매력, 악기별 소리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국악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립국악단의 거침없는 도전은 이제 첫걸음을 뗀 뿐이다. 올해는 연주 역량을 높여 조성의 자유로운 변화를 꾀했다. 점차 음의 세분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악기 개량으로 음색과 음량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험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끊임없는 시도로부터



지휘자 페렌체가보

오늘날 다양해진 음악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우리 악기가 어떤 음악이든 소화할 수 있는 보편적 악기가 되어 보편적 감동을 선사할 그날을 위해 경기도립국악단은 계속 땀 것이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모험을 떠난 '페르귄트'가 되어보자.
조용한 새벽빛이 떠오르는 모로코 해변의 아침을 깨우는 소금이라! 이국적 풍경 속 고요를 깨우는 소금의 선율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음악적 쾌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국악의 진화를 지켜보는 즐거움이 크다.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일시 11월 19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출연 지휘_페렌체 가보, 연주_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8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맺고 어르다 푸는’ 한국무용의 새로운 미학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경기도립무용단이 한 무대에서 색다른 춤맛을 느낄 수 있는 신작을 내놓는다. 한국무용에 기반을 둔 〈블랙 플라워〉와 현대무용을 기본으로 한 〈13인의 칸타타〉가 바로 그것. ‘서로를 생각한다’는 상상(想相)이란 제목 아래 빛과 어둠의 상반됨과 조화로움이 〈블랙 플라워〉에 담겼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모티브로 인간의 선과 악, 정(靜)과 동(動)의 이중성이 〈13인의 칸타타〉에 녹여져 있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어 버린 시대, 다름의 조화와 인간의 이중성을 이해하려는 몸짓을 통해 화합과 소통이란 시대적 화두를 건넨다.



이번 공연에서 궁중무용과 민속춤, 창작무에 이르기까지 우리 춤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기도립무용단은 한국적 춤사위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움직임들을 통해 시대를 품는 몸짓을 찾아 나선다. 김정학 예술단장 취임 후 경기도립무용단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쳇말로 무용계 핫한 젊은 안무가를 상임안무와 지도위원으로 모셔온 것. 한국무용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학을 찾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립무용단과 호흡을 맞춘 상임안무가 최진옥은 2001년 동아무용콩쿠르 대상을 차지하며 많은 남성 무용수들을 한국무용의 세계로 이끈 장본인이다. 뛰어난 카리스마와 에너지로 국립무용단의 주역 무용수로 활약한

그는 〈목향〉, 〈토너먼트〉 등에서 조안무로 활동하며 꾸준히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왔고 2015년 〈적(赤)〉에서 보여준 전통과 창작,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뛰어난 그의 해석을 무용계가 주목했다. 〈블랙 플라워〉에서 최진옥은 상반된 조화를 강조한다. 빛과 어둠처럼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가 확인되는 찰나가 지닌 극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표현함에 있어 최진옥은 한국적인 것에 집착한다. 다른 춤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무용이 지닌 특유의 호흡과 발디딤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한국무용에서 쓰지 않았던 움직임과의 조화를 고민했다. 이뿐 아니다.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춤사위 외에도 시·청각의 색다른 자극을 꾀한다고 하니 한국무용은 이럴 거라는 틀을 깨는 그의 행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지도위원 윤민석은 한국 전통춤의 호흡에 현대무용의 풍부한 표현력을 더한 새로운 우리 춤을 고민하는 안무가이다. 그는 한국무용을 전공했으며 1999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8대학에서 다양한 현대 무용 기법을 탐색했다. 이 특이한 이력 때문일까. 그와 경기도립무용단의 만남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13인 칸타타〉에서 윤민석은 관객과 공감하고자 누구나 잘 아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가져왔고 나무의자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품들을 무용 언어로 차용했다. 선과 악, 인간의 이중성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함축미를 지닌 시적 어법으로 풀어낸다. 이번 작품은 무용수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무용 동작에 익숙한 무용수들이 사용하는 호흡과

근육이 다른 현대무용 움직임이 편안할리 없다. 윤민석 안무가는 무용수들에게 학습된 모든 한국적 춤사위를 넘어서라고 주문한다. 기존의 틀을 깨 자신의 몸과 진솔하게 마주하는 것. 한국적 움직임과 현대적 동작의 충돌을 통해 경기도립무용단만의 색을 찾아가고 관객에게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얼마나 깊고 정교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일시 11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26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빅토르 위고는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서문에 "몇 해 전 노트르담 성당을 구경했을 때 한쪽 탑 감람한 구석 벽에 손으로 새긴 낱말, 'Ananke(아낭케)'를 발견했다"고 적었다. 그리스어로 '숙명'이란 뜻을 지닌 이 단어에 영감을 받은 그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결국 자신의 숙명을 넘지 못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그렸다.

Synopsis

1482년, 파리를 뒤흔든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프롤로 주교는 꿈추 종지기 콰지모도를 총직한 종으로 삼고 있다. 한편 성당 앞 광장에 모여 사는 집시들. 그곳에 클로팽과 아름다운 여인 에스메랄다가 산다. 에스메랄다의 춤추는 모습을 우연히 본 후 프롤로 주교는 그녀를 향한 욕망에 휩싸이고, 근위대장 페뷔스는 약혼녀인 플뢰르 드 리스를 두고 에스메랄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 후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콰지모도, 집착의 프롤로, 욕망의 페뷔스. 한 여인에 대한 이들의 엇갈린 감정은 숙명적인 비극으로 치달게 되는데...



콰지모도
홍광호

콰지모도
케이원

콰지모도,
클로팽
문종원

프롤로
최민철

페뷔스
오중혁

때는 1482년 사랑과 욕망이 뒤섞인 도시 파리,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 사상이 싹트던 15세기 프랑스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 집시 에스메랄다, 주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 시인 그랭구와르 등 노트르담 성당을 무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볼 수 있다.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해 다가설 수 없는 슬픈 사랑을 하는 콰지모도와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갈등하는 성직자 프롤로, 사랑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위신과 신분 앞에서 그녀를 배신하는 근위대장 페뷔스, 그들의 내면적 갈등이 프랑스어 특유의 선율 위로 흐르며 인간 내면에 숨겨진 사랑, 본능, 욕망, 충동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흥미로운 점은 숙명을 거역할 수 없는 그들의 갈등과 충돌이 새로운 시대로 인도한다는 것인데,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 속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의 절규가 또 다른 울림을 전한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인기 비결로 익숙한 스토리와 더불어 서정적인 프랑스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한 편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가 돋보이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 위에 대사가 없어진 대표적인 성 스루(Sung through, 대사 없이 모두 노래로만 구성) 뮤지컬이다.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 (Danse mon Esmeralda)’, ‘아름답다(Belle)’, ‘대성당의 시대 (Le Temps des Cathedrales)’ 등 총 51곡의 주옥같은 넘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음악과 시적인 가사에 집중하기 위해 노래하는 배우와 댄서를 분리했는데 음악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노래하는 배우 뒤에 그의 감정을 대신 춤으로 표현하는 무용수를 두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이처럼 듣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는 재미까지 갖췄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 세트 (길이 20m, 높이 10m)와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압도적인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프랑스 특유의 조명 기술과 안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생명력 넘치는 무대가 연출된다. 현대무용에 아크로바틱과 브레이크 댄스가 접목되어 자유롭고 독창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안무는 온몸을 전율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최강의 라인업을 들 수 있다. 콰지모도 역에는 한국을 넘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홍광호, OST 킹으로 불리며 뮤지컬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지는 케이원, 라이선스 공연에서는 드물게 콰지모도와 클로팽 두 역할을 맡게 된 문종원이 나선다. 또한, 〈노트르담 드 파리〉를 대표하는 마이클리, 서범석, 최민철을 필두로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하는 전나영, 린아, 김다현, 오중혁, 이충주, 박송권, 김금나, 다운(2EYES) 등이 가세하면서 최강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빛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시 10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후 3시 · 7시, 16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출연 홍광호, 케이원, 문종원, 린아, 전나영, 김다현,
마이클리, 최민철, 서범석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순수가 그림다. 동심으로 떠나볼까?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드림콘서트 동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파란 나라에는 꿈과 사랑이 가득하다. 실바람을 끌어안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뿐인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정글 숲 악어 떼와도 만났고, 맛있게 찢진 옥수수는 아기가 불고 노는 하모니카도 됐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동요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다. 동요를 통해 우리는 상상을 했고 꿈을 키워왔다.
안타까움이 문득 밀려올 때가 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하모니로 잃어버린 동심을 깨운다.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 무대에 올라 동심 저격에 나섰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순수한 표현이 가득한 동요엔 힘이 있다. 어른들 기억 속에 사라진 꿈, 상상, 희망, 추억 등을 소환해내니 말이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담은 동요. 이를 듣다보면 아련한 추억에 잠겨 먹먹한 감동과 마주하기도 한다.

일상 속 치열한 경쟁에 놓인 어른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동요의 마법이 비단 어른에게만 통할까. 아이들 가수의 노래가 더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단다.

올해로 6년 째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임직원,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새터민, 다문화, 장애인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 문화배려층 가정의 아이들이 합창수업을 받아왔다.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동안 다양한 동요를 불러 온 아이들이 우리말에 숨겨진 맛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예쁘고 착한 표현들이 처음에는 낯간지럽기도 했으나 그 매력에 점점 빠져갔다는 후문. 맑고 긍정적인 노랫말을 따라 마음에 소소한 기쁨들이 생겨났다. 동요가 시시하다고 느꼈던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접하는 말이 달라지니 행동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혼자’, ‘스스로’에 익숙한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내 소리뿐만 아니라 친구의 호흡과 작은 몸짓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완성되는 합창을 통해 함께 만드는 하모니의 짜릿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에는 45명의 지휘자와 반주자 선생님이 재능기부로 함께하고 있다. 든든하게 아이들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기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가 있었다.

드디어 지난 수개월 동안 700여 명의 아이들과 45명의 선생님이 지지고 볶으며 함께 갈고 닦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무대에 오른다. 2015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곡인 ‘꼭 안아줄래요’와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우리들의 겨울’ 등 따뜻함이 가득 담긴 동요를 만나볼 수 있다.

각양각색 7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여 줄 통통 튀는 다채로운 매력을 기대하시라. 우리가 그리워한 순수를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의 여섯 번째 무대가 이번 가을도 따뜻하게 꺼안는다.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드림콘서트 - 동심〉

일시 11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초대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국악아동극 아빠월드

일시 10월 5일~12월 7일 (매주 수)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가격 어린이 2만원, 성인 1만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만약 아빠를 고를 수 있다면? 생일날까지 회사로 간 아빠에게 서운함을 느낀 아영이. 아이들이 원하는 아빠가 모여 있는 <아빠 월드>로 가게 되는데... 과연, 바쁜 회사일로 오해가 쌓인 아빠와 딸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퓨전국악 선율을 타고 아빠와 딸 화해프로젝트가 잔잔한 감동을 안긴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정지원 피아노 독주회

일시 10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무료
신청 nanumi@ggac.or.kr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해 양성하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이번 무대는 최연소 경기 영아티스트 정지원의 독주회다. 2016년 한국 쇼팽 콩쿨 중등부 1위, 모스크바 연방 정부 주최 그랜드 피아노 콩쿨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특별상인 데니스마추예프상을 수상한 무서운 신예다.



2016 브런치 콘서트 로맨틱 뮤직 레시피 엔니오 모리코네 인 재즈

일시 10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5천원
출연 재즈피아니스트_이선지, 바이올린_주소영,
재즈드러머_김대호, 콘트라베이스_장진주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놓칠 수 없는 브런치 타임! 영화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음악으로 이제는 전설로 기록되고 있는 영화음악계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곡과 만난다. 영화 <말레나>, 영화 <시네마 천국>의 극 중 곡 등이 연주되며, 섬세한 편곡과 함께 재즈피아니스트 이선지 특유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시 10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후 3시 · 7시, 16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출연 홍광호, 케이윌, 문종원, 마이클리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1482년, 파리를 뒤흔든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격과 감동의 깊은 울림!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프랑스 뮤지컬로 만난다. 한국을 넘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홍광호, OST킹으로 불리며 뮤지컬에 야심찬 출사표를 던진 케이윌, 최초 두 역할에 도전하는 문종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캐스팅에 두 눈이 번쩍!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시리즈Ⅶ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일시·장소 10월 21일(금) 오후 8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10월 22일(토)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가격 (수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서울)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출연 지휘_성시연 내레이터_김석훈 외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경기필하모닉의 선택!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전곡 연주.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걸작 <한여름 밤의 꿈>을 이제 멘델스존의 음악으로 만난다.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우 김석훈과 이아현이 내레이터로 나서고 관객의 몰입을 돕고자 발레리나 김주원이 함께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건반위의 대화

일시 10월 26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출연 피아니스트_이형민, 이민영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두 대의 피아노,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건반위의 대화. 건반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펼쳐지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작은 소야곡(Eine Kleine Nacht Music)>과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Adios Nonino)>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피아노 소품들과 만난다.



친절한 콘서트 I 재즈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타트 재즈〉

일시 10월 29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출연 베이스기타_김재환, 기타_박경수, 건반_이명건, 드럼_한웅원, 보컬_김현미, 랩_C.Park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공연 초심자들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들도 착한 〈친절한 콘서트〉. 그 첫 번째 무대는 재즈에 대해 알아본다. 여전히 초보자에게 턱이 높은 재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재즈를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입문 콘서트이다. 재즈가 궁금하다면 과감하게 짚!



2016 거미 콘서트 Feel the Voice

일시 11월 5일(토) 오후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12만 1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OST와 R&B의 여왕이라 불리는 거미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 거미의 히트곡과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 폭풍 같은 뜨거움과 가슴 저민 애절함, 때론 소녀의 설렘을 간직한 소리의 마법에 빠져보자.



경기도립국악단 창단 20주년 기획공연5 세계를 품다

일시 11월 19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3만원, S석2만원
출연 지휘 페렌체 가보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8세 이상

국악계 변화의 중심에 서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경기도립국악단의 행보가 놀랍다. 1년간 국악이 지닌 조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자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경기도립국악단의 역작. 국악버전으로 듣는 그리그의 페르귤트 모음곡은 어떤 감동을 안길 것인지, 여기 국악관현악의 미래가 있다.



친절한 콘서트 II 강충모의 〈All about Piano〉

일시 11월 24일(목)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출연 피아니스트_강충모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클래식 포기자들에게 희소식. 만만찮은 클래식 문턱을 낮추고자 피아니스트 강충모가 나섰다. 어디선가 들어본 친숙한 피아노곡을 엮어 곡에 얹힌 뒷이야기와 피아니스트의 삶과 관련된 실화들을 들려주니 이보다 친절할 수가!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나만 알고 싶은 콘서트.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일시 11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26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한국무용의 화려한 변주가 시작된다. 한국무용에 기반을 둔 〈블랙 플라워〉와 현대무용을 기본으로 한 〈13인의 칸타타〉 두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기회. 젊은 안무가 최진욱과 윤민석이 재해석한 우리춤의 놀라운 미학이 펼쳐진다.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몸짓의 반란을 주목하시라.



친절한 콘서트 III Keep it Real 〈힙합 컬처 콘서트〉

일시 11월 26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출연 밴드_쿠마파크, 힙합댄서_Yellow D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히트다 히트. 힙합의 열기가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언더그라운드를 주류잡던 힙합이 주류음악이 되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스웨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데, 하나의 음악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매개로 우뚝 선 힙합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VJ의 영상과 함께 만나본다.

경기필하모닉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그 화제의 현장

올 초,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벌인 세기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산업분야는 물론이요 창작의 영역인 그림과 소설과 같은 예술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활약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니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8월 10일 경기필하모닉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에밀리 하월’의 대결을 마련한 것. 두 곡 중 어느 곡이 더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시험하는 음악회였다. 매진 기록을 세웠고 언론과 평단의 관심까지 이끌어냈다. 공연 당일,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의 공기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모차르트인지 인공지능인지 작곡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듣는 블라인드 테스트. 1500여 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 일일 진행자로 나선 로봇 러비(lov)가 설렘으로 가득 찬 공연장의 고요함을 깼다. “어떤 게 진짜 모차르트 곡이며 어떤 게 인공지능의 곡인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드디어 성시연 예술단장의 지휘에 맞춰 기다리던 첫 번째 곡이 연주됐고 연이어 두 번째 곡이 울렸다.

272 대 514, 인터미션 시간에 진행된 투표 결과 두 번째 곡의 승리였다.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34번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Allegro vivace)였다. 모차르트의 승리에 객석은 뜨겁게 환호했다. 이 환희엔 작곡 분야에선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을 수 없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렇다고 하여 인공지능 ‘에밀리 하월’이 작곡한 곡이 듣기 거부했을까? 그렇지

않다. 밝고 아기자기하며 우아한 모차르트 특유의 매력이 담겨있었다. 어찌 보면 모차르트 보다 더 모차르투스러운, 너무 모범답안을 따랐기에 대다수의 청중들이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다. 한 여학생의 관람평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첫 번째 곡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자신은 그 곡에서 고요한 숲 속에 온 것 같은 동화 같은 기분이 들어 1번을 선택했단다. 비록 이번 대결에선 인간의 승리로 끝났지만,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에 누군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조물이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창작곡을 쓴 김택수 작곡가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이 갖고 있던 틀을 넘어 또 다른 창조, 창작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스스로 학습 단계까지 오른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다음 대결에서는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터.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 경기필하모닉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화두를 건넸다.



9월 20일 발칙한 무대가 경기도국악당을 찾았다. 성인만을 위한 19금(禁) 소리판이 열린 것.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장단에 얹힌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쉬쉬해왔던 어른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민요나 판소리에 녹아 있는 성(性)을 과감히 무대 위로 올렸다. 금기시 되어왔던 이야기의 빔장을 여니 일터와 놀이판 등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해온 민요의 저력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춘향가> 중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가’의 한 대목. 이번 무대에선 ‘사랑가’ 대신 ‘궁자노래’가 선보였다. 춘향과 몽룡의 과감한 애정 행각이 그려지는데 새롭게 듣는 <춘향가>에 객석은 사뭇 놀란 듯했다. 이처럼 생생한 가사에 현실 속 불가능한 기생의 딸과 지체 높은 도련님의 사랑 이야기가 당시 서민들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았는지, 그 시대에 이 노래가 만들어져 불린 이유가 더욱 마음에 와 닿는 듯 했다. 뿐만 아니라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장가 못간 저 총각이 안달이 났다’는 경기민요의 ‘뱃노래’나 ‘주려면 주던지 안 주려면 말던지 밤마다 오라고 해놓고 줄 듯 말듯하다’는 강원도민요의 ‘자진아라리’가 불린 맥락들을 들여다보면 색(色)을 탐하는

외설이 아니라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자 한 조상들의 유희를 엿보게 된다.

90분 내내 소재 자체가 주는 파격만큼 관객의 반응은 짜릿했다. 이 짜릿함엔 은유적인 표현 속 민중의 답답함을 뚫어주는 통쾌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립국악단 민요팀의 구성진 노래와 이해를 돕는 해설로 민요의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준 시간. 우리 민요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 헤치고 선보이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한다.



통하였도다! 정중동(靜中動)의 멋, 우리네 흥

경기도립무용단 미국 공연



워싱턴D.C와 애틀란타에 부채꽃이 피었다.
화려한 부채, 우아한 자태, 피었다 졌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기도립무용단의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의 시선을 붙잡았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문 우리 춤의 맛과
멋, 여인의 잘록한 허리를 감싼 장고엔 한국
여인의 흥과 아름다움이,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엔 남성의 용맹과 기백이 담겼다.
태권무엔 인간 존엄의 정신까지 품었으니
바다 건너 타국에서 만난 우리 춤은 또 다른
감격을 안긴다.

마거릿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된 애틀란타는 미국 남동부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의 중심도시로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심심찮게 보이는 한글 간판에 새삼 한류열풍을 실감하기도 했다. 8월 28일 애틀란타 인피니트 에너지 극장에 경기도립무용단이 올랐다.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곳에 지난해부터 현지 교포 단체가 <2016 원 코리아 평화 페스티벌>을 열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립무용단을 초청한 것이다. 700여 석을 가득 메운 이날 공연에는 궁중정재 가인전을 시작으로 동래학춤, 부채춤, 장구춤, 태권무, 강강술래, 농악무 등 한국 전통무용 중 가장 역동적인 춤과 정적인 춤의 대비를 통해 우리 춤의 정중동 미학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역동적인 상모돌리기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는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그 감격이 관객은 물론이요 경기도립무용단 단원들에게도 잊지 못할 짜릿한 전율을 안겼다.

애틀란타의 흥분과 감동은 고스란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이어졌다. 소리청(한국 전통문화단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초청 무대로 9월 3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해리스극장을 찾았다. 이 대학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우린 할 수 있다(Yes, We Can)' 연설을 한 후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해 더욱더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젊음과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에서도 우리 춤 특유의 역동성과 정교함은 어김없이 통했다. 재외동포에게는 고국의 향수를 달래주었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한 소중한 시간. 미국 내에서 비교적 우리 문화 공연이 드물었던 워싱턴 D.C에서의 공연이라 의미가 더욱 컸다.

공연마다 끊임없는 박수갈채에 우리 춤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 때론 단아하고 화려하며, 정적이며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묶는 마력이 있나 보다. 궁중정재부터 창작무용까지 맛깔스럽게 담겼던 우리 춤 성찬이 미국 내 한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으며 현지인들을 매료시켰다. 춤사위마다 담긴 정중동(靜中動)의 멋과 우리네 흥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다름을 이어준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한국 전통문화가 지닌 또 다른 미학을 전했고 모두가 감동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당연한 진리를 발견한 미국 공연. 한국을 대표해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경기도립무용단이라 쓰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이라 읽는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을 올리는 경기필하모닉 기획실에 비상이 걸렸다. 내레이터 섭외로 큰 고민에 빠진 것. 음악적 감각은 물론이요, 셰익스피어 연극의 맛을 살릴 줄 알아야 하며, 〈한여름 밤의 꿈〉 전곡 연주라는 흔치않은 시도에 대중적 인지도까지 필요했다. ‘음악’, ‘연기’, ‘인지도’까지 이 3박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미션에 구세주같이 등장한 배우 이아현을 만나본다.

경기필 기획실과의 첫 미팅, 높디높은 파란 하늘이 마음을 흔들던 어느 청량한 가을날. 상큼한 미소를 머금은 이아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이란 호칭에 손사래 치며 “제가 무슨 선생님이예요, 편안하게 언니라고 불러주세요”라는 그에게 오히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 건 왜일까. 앉자마자 시작된 콘서트 이야기. 의자를 바짝 당기며 원하는 목소리 톤은 무엇인지, 무대 동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음악은 언제 나오는지 세세히 챙기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쏟아내는 그에게서 연기경력 22년차, 관록의 배우가 지닌 아우라가 느껴졌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마법의 세계와 달콤한 배우 이아현의 컬래보레이션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음악, 연기, 인지도 3박자 갖춘
달콤한 배우 이아현

“셰익스피어가
만든
마법의 세계로
놀러 오세요”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남다른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를 기념하는 자리이고 경기필하모닉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배우로써 욕심이 나는 무대죠. 목소리 연기 그것도 한 역할이 아닌 네 역할을 소화하는 거라 부담감도 있지만 처음 해보는 실험적인 도전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큼니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놓치고 싶지 않았죠.

작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하셨죠. 그래서 이번 경기필하모닉과의 합이 더욱 기대됩니다.

tvN ‘언제나 칸타레’에서 제2 바이올린 주자로 무대에 섰었죠. 사실 힘들었어요. 바이올린을 놓은지 30년이나 지났으니 제 성에 찰리가 있나요. 이래 봐도 제 귀가 엄청 예민해요.



선화예고 시절 청음 실력으로 이름 좀 날렸거든요. 그러니 제 바이올린 소리가 거슬릴 수 밖에요. 연습만이 답이었는데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보니 연습 시간을 넉넉히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고요. 하지만 오케스트라 합주가 주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 화음을 만들어 나간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은 저를 전율케 합니다. 이번 무대는 제가 연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레이션으로 경기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경기필하모닉과 어떤 교감을 나누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무대에 라이선더를 사랑하는 ‘허미아’와 디미트리어스를 사랑하는 ‘헬레나’,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와 ‘요정’을 맡으셨어요. 1인 4역, 어렵지만 재밌는 작업이 될 듯한데요.

예전에 정명훈 선생님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무대에 내레이터로 함께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설자로 선 자리였죠. 이번 무대는 다양한

캐릭터를 오가며 연기를 펼쳐야 하니 사실 부담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가진 유쾌한 힘이 있잖아요. 대본을 읽으며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에 푹 빠져있습니다. 요정 펍의 실수로 갑자기 사랑을 잃게 된 헬레나의 심정을 어떤 목소리로 담아낼지, 당나귀로 변한 보텀과 사랑에 빠진 티타니아, 실수는 잦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요정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연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 속 캐릭터를 소화함에 있어 본인만이 지닌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배우 엄마들의 직업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 책을 읽어줄 때 따옴표만 보면 연기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제가 책 읽어 줄 때를 가장 좋아해요. 잠도 안 잘 정도죠. 소리만으로도 눈앞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이 생생히 살아나니 그런가 봐요. 유치원에 학부모 일일교사로 참여한 적 있는데 거기서 책 한편 읽어주고 일일 스타가 됐다니깐요. 브라운관이나 무대에서는 1인 다역을 선보인 적 없지만 실생활로 다진 목소리 연기 내공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배우 김석훈과는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둘의 케미는 백점만점에 백점? (웃음) 저와 김석훈 씨가 동갑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김석훈 씨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고 있죠.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호흡을 맞춰 봤기 때문에 우리 둘의 케미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각자가 지닌 장점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를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전곡을 연주하고 여기에 발레와 내레이션까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이 흔치 않은 일이라 들었어요. 새롭게 시도되는 이번 무대에 큰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마법의 세계!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주인공 ‘마이클 리’에 홀릭되다

더블 캐스팅(2명), 트리플 캐스팅(3명)을 넘어 쿼드러플 캐스팅(4명)까지 국내 뮤지컬계는 유난히 한 배역에 여러 캐스팅을 하는 일이 잦다. 한 인물에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배우를 선택해야 할지 관객에겐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 빛을 발하는 마이클 리! 나긋나긋 달달한 목소리로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기도 하고 한순간 모든 감정을 응집시켜 폭발시키는 그의 ‘사이다’ 싸우팅에 답답했던 가슴 한편이 후련해지니 한번 보면 계속 빠지게 되는 그의 매력이 궁금하다. 뮤지컬 팬들에겐 신화의 이름이요 함께하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마성의 그와 나눈 이메일 인터뷰. 고요함 속에 진정성이란 강인함을 지닌 마이클 리. 10월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시인 ‘구랭구아르’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문을 여는 그를 미리 만나본다.

1995년 브로드웨이 ‘미스 사이공’으로 뮤지컬에 데뷔했으니 뮤지컬 무대에 선지 올해로 21년이 되었네요. 2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비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나 대본에 불과 몇몇 단어로 표현된 인물에 캐릭터를 만들어가며 삶을 부여하는 것, 노래와 춤추며 연기하는 것을 사랑하죠. 그리고 배우들과 창의적인 크리에이브 팀과의 만남은 항상 저를 설레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벌써 21년이 되었네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스탠퍼드 의대’란 전도 유망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뮤지컬 배우로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정적인 길 대신 마음의 소리를 따라 뮤지컬을 선택한 것에 후회해본 적 있으세요?

배우가 되었다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것들은 제가 선택한 이 길에서 얻은 것들이죠. 제가 배우가 되었기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 아들 제시와 주드를 제 인생에 데려와 주었죠. 그리고 보니 가끔 제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데 이때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가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공연을 하게 돼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는데 그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당신을 사로잡은 뮤지컬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 뮤지컬은 최고의 예술적인 매체입니다. 말로 하는 대사, 노래하는 목소리, 움직임과 춤 등 다양한 예술적 표현들이 뮤지컬에 들어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여러 장르를 초월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 한국 무대 또한 ‘미스 사이공’으로 처음 밟았죠. 그때가 2006년이었으니까 한국 관객과 만난 지 10년이 되었네요. 그 시간이 지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은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배우들과 크리에이브 팀을 통해 상상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특히 영어가 아닌 한국말 공연은 제게 큰 도전이었는데, 텍스트를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경험은 저를 더 뛰어난 배우로 만들어 주었으며,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와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무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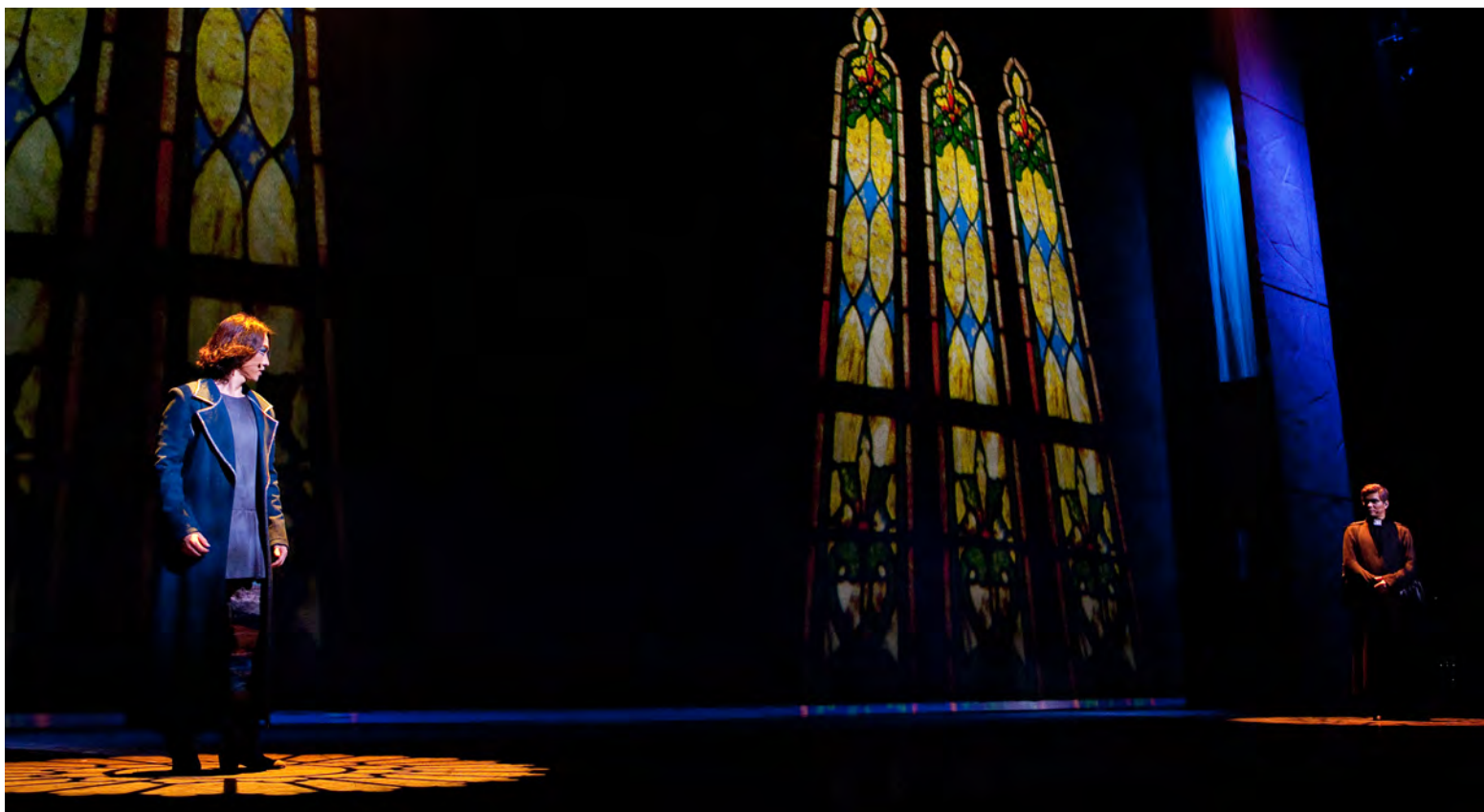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실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배우의 근원은 같다고 봅니다. 차이라면 언어적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배우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 색을 가질 뿐입니다.

○ ‘미스 사이공’을 비롯해 ‘노트르담 드 파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엘리전스’, ‘벽을 뚫는 남자’, ‘서편제’ 등 수많은 무대에 올랐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모든 뮤지컬에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있습니다. 그중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의 <마지막 5년>이란 작품을 잊을 수 없는데요. 제 뮤지컬 이력 중 초창기에 올렸던 이 공연은 남녀의 로맨스와 결혼을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그때 전 유태인이며 젊은 소설가인 제이미에 푹 빠져있었는데 캐릭터 본연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간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 수많은 작품 중 본인과 가장 닮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배우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가 나와 닮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대 위에서 바로 그 캐릭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캐릭터일 뿐이기에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반대로 가장 다가가기 어려웠거나 공감하기 힘들었던 인물이 있었을까요?

전 배우이기에 내가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을 이입해야만 합니다. 무대의 막이 올라갈 때 저는 캐릭터와 한 사람이 되어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배우의 숙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가 궁금합니다. 사실 라이브로 듣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항상 바뀝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한 시간 안에도 바뀔 수 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곡 혹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좀 더 다르게, 새롭게 알려주는 곡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뮤지컬 <컴퍼니>의 '살아있다는 것(Being Alive)'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곡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보다

어떤 것이 아닌 건지 다시 말해 사랑으로 간주되는 것 말고 간주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 극의 주인공인 '바비'는 고통과 불편함, 거짓말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우울할수록 완전한 삶과 사랑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음악은 황홀하며 가사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뮤지컬이 지닌 힘을 발견하곤 합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공연이나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뮤지컬 <컴퍼니>의 '바비'를 꼭 해보고 싶어요. 넘버 '살아있다는 것(Being Alive)'에 대해 설명했듯 사랑과 인간관계를 냉소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번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노트르담 드 파리'와는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랭구아르는 한 여자와 세 남자의 사이에 있으면서 그 관계의 바깥에 있기도 한 묘한 캐릭터이죠. 3년 전 그랭구아르와 2016년

그랭구아르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전에 맡았던 역할을 다시 보완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미 그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다시 그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캐릭터에 대한 진실의 여러 측면을 보다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하죠. 이는 리허설 과정 중에 저의 생각과 행동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저는 이런 면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기에 있어 최대한 정직하게 임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언제나 같기에 저의 2016년 그랭구아르가 3년 전과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는 관객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노트르담 드 파리’의 명장면을 꼽아주세요.

저희의 최고 명장면은 ‘미치광이들의 축제(Feast of Fools)’로 들 수 있죠.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댄서들의 뛰어난 기량에 놀랄 수 밖에 없으며 바로 이 장면에서 ‘과지모도’가 소개되기 때문이죠.

이 공연을 꼭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뮤지컬은 당신의 모든 감각을 깨워줄 축제와도 같습니다. 비주얼이 정말 탁월하고 음악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극장을 나선 뒤에도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떠한 뮤지컬과도 다른 극의 매력을 만나보시게 될 거라 자신합니다.

이번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무대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 공연을 사랑하지만 보러 오시는 관객들도 정말 애정하는 뮤지컬이죠. 저는 파리의 아름다움과 애절한 이야기를 그랭구아르의 관점에서 들려드릴 텐데요. 기대해주세요! 극장에서 뽀빠리 하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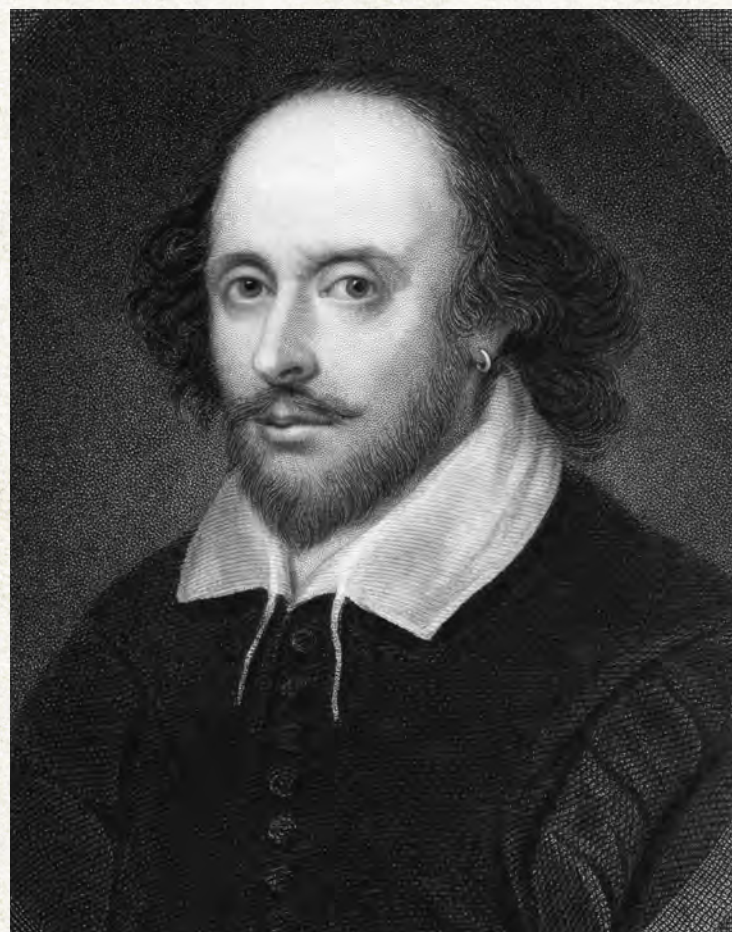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Shakespeare & 세르반테스 Cervantes

글 이진경 철학자

우리는 종종 같은 날 태어난 이들을 보고 신기해한다. 그만큼 같은 날 죽는 것도 드문 일이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같은 날 죽었다면(두 사람은 태어난 해는 달랐지만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 작고했다), 과학이 지배하는 지금 시대라 해도 어떤 운명적인 연을 느끼게 한다. 작품은? 셰익스피어는 <햄릿>, <리어왕> 등의 비극 말고도 대개 중후하고 진지한 희곡들을 썼다. 세르반테스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작품 전체를 모은 것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의 가볍고 익살스러운 소설 <돈키호테>를 썼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작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유심히 뒤져보면 서로 엇갈리며 통하는 지점들이 보인다. 먼저, 연극과의 관계가 그렇다.

알다시피 셰익스피어는 현실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세계를 연극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다. 세계란 수많은 연극들의 집합이라는 듯. 세르반테스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버린다. <돈키호테> 2부가 그렇다. 2부는 편력 기사가 되어 풍차를 향해 돌격하기도 하고 양 떼들을 군대라며 덤벼들어 난리를 치기도 하던 1부의 얘기들이 책으로 출판되어 돈키호테가 유명인사가 되었음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돈키호테는 그걸 아는 상태에서 편력 여행을 시작한다. 2부의 수많은 에피소드는 이렇게 잘 알려진 돈키호테에 맞추어 현실의 인물들이 연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령 2부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공작 부부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움직여 돈키호테 머릿속에 있는 기사도적 세계에 맞추어 연기를 하게 한다. 심지어 산초 판사로 하여금 자신의 영지인 섬의 통치자가 되도록 추천하고, 그 섬의 모든 이들이 그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지시한다. 1부에선 돈키호테와 현실의 거리가 읽는 이를 웃게 만들었다면, 2부에선 그 양자의 합치가 읽는 이들을 웃게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현실에 없는 것을 연기하게 하여 연극적 세계의 현실성을 보여주려 했다면, 세르반테스는 현실 자체를 연극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현실적 세계의 연극성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광기를
빌어 비극 속으로 들어갔다면,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웃음을 빌어 저 웃기는 세계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

서로 다르지만 같은 두 사람

작품의 내용에서도 두 사람은 묘하게 만나고 엇갈린다.

일단 두 사람의 작품 모두 광기가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부왕 시해의 진실을 알게 된 햄릿은 급기야 미쳐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연인 오펔리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마녀들의
예언을 믿고 왕 던컨을 시해했던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모두
광기에 사로잡혀 해선 안될 언행을 하며 몰락의 길을 간다.

리어왕은 자신이 선택한 두 딸의 거짓과 자신이 버린 코델리아의
진심에 다가가면서 미쳐가고, 이아고의 모략에 속아 아내를
의심하게 된 오셀로는 급기야 그 광기로 인해 아내를 죽이게 된다.

돈키호테 또한 그렇다. 기사도 소설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된

돈키호테의 망상(delirium)과 광기가 그를 어이없는 모험들로

밀고 간다. 기사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에도 매우

지혜로운 식견을 가진 그를 지혜와는 반대방향의 삶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기사도적 '이상'이고 그 이상의 힘에 사로잡힌 광기다.

루카치처럼 돈키호테의 행적에서 현실과 어떤 접점도 갖지

못하기에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모험에서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협소한 이상의 불모성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사라져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과거의 꿈이나 이상 모두를

거짓으로 부정할 뿐인 '환멸의 이상주의'임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미쳐가는 것에서는

세계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형성하고 불화의 힘에 의해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반성적 사유의 힘을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불화하는 세계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미쳐가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달리, 웃고 즐기기 위해

한 사람을 속이는 거대한 연극을 벌여 다른 세계를 향해

미쳐가는 돈키호테의 희극에서 웃음이 가진 다른 종류의 힘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부연하자면, 배우가 연극적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의 삶을

몸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에 눈을 뜨게 하는 길이다. 그렇기에 연극은 관객 이전에

배우의 신체에 작용한다. 관객에게조차 배우의 연기는 주어진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감응이나 감각을 촉발하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관객마저 그 실험적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돈키호테> 2부가 바로 그렇다. 가령 돈키호테에게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라만차'라는 소설에 대해 알려주었던 고향마을의 삼손 카라스코는 기사도여행을 떠난 돈키호테를 찾아가 '하얀 달의 기사'를 자처하며 돈키호테와 결투를 청한다. 편력을 중단하고 고향마을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물론 이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치유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연기다. 연극과 현실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는 이 연기를 통해 돈키호테는 결국 광기에서 벗어난다. 또 공작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 속에서 섬의 통치자 역할을 했던 산초는, 비웃으며 대하던 이들이나 웃으며 읽던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탁월하게 통치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애초에 연출되지 않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연극을 통해 이미 소설 속의 현실 세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이와 다를까? 아마도 이는 세르반테스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돈키호테의 매력일 것이다.

비극과 희극이 공유하는 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광기의 힘을 빌려 현실의 극한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역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을 드러낸다. 광기는 오셀로를 속이는 이야고의 함묵적 이성애 농락당하는 자리나 리어왕을 속이는 두 딸의 계산적인 지성에 속는 무지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맥베스와 그의 부인처럼 신의나 양심을 배신하여 왕과 친구를 죽이고 자신 또한 죽어가는 눈먼 지성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 혹은 햄릿처럼 남들은 모르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보았기에 발동하기도 하지만, 맥베스처럼 남들이 몰라야 하는, 말해선 안될 어떤 비밀을 만들었기에 발동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나 미치는 것은 그 비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다. 견딜 수 없는 곳, 그곳은 극한이다. 거기서 광기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비밀을 드러내는 표시인 것이다. 반면 세르반테스 소설 1부의 돈키호테는 광기의 힘을 통해 부재하는 세계를 현실 속에 끼워 넣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다시 보게 한다. 돈키호테의 광기가 광기인 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소동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 한쪽 면이라면(1부), 그 광기가 광기인 줄 알기에, 그것에 맞추어 놀려주고 즐기



셰익스피어 연극 '햄릿'의 한장면

위해 모든 이들이 그 광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다른 한쪽 면이다(2부). 돈키호테 한 사람의 유희적인 광기가,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현실을 바꾸려는(이거야말로 더 없는 광기 아닌가!) 전체의 유희적 광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와 달리 돈키호테의 광기는 남들이 모르는 세상의 비밀을 엿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모두 아는 세상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광기에 맞추어 연기함으로써 미친 세상을 웃고 즐기려 하지만, 그로 인해 자기들이 사는 세계를 바꾸어버렸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무지 또한 돈키호테와 유사한 또 다른 광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거기서 광기는 작품 안의 인물이나 밖의 독자 모두에게 조롱의 대상임에도, 현실 이상으로 현실적인 허구적 세계의 힘을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무지의 형식으로 현실의 비밀을 보여주는 힘이다. 광기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광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건 광기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살아야 했던 현실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가 광기를 빌어 부재하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은, 아마도 만족할 수 없었던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을 젊은 날의 방향과 여행처럼, 너무 뻥하고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반면 스스로 기사도 소설의 광적인 독자였고, 필경 그 때문일 텐데, 목숨을 건 용감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충상을 입고 한 손을 잃기도 했으며, 터키 해적의 포로가 되어 5년간 노예생활을 했고 그들이 요구한 몸값을 위해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게 했던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그런 미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키호테>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도적 이상이 요구하는 대로 지나치게 충실하게 살아서 모든 이의 웃음거리가 되는 돈키호테를 통해 그런 이상이나 요구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다른 이들 또한 그런 식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었을 터이다. 요컨대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광기를 빌어 비극 속으로 들어갔다면,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웃음을 빌어 저 웃기는 세계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살아야 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두 사람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드리드 에스파냐 광장에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동상



런던 레스터스퀘어에 있는 셰익스피어 동상

지난 여름, 리우 올림픽 중계 열심히 보셨습니까.
‘극적인 장면’도 많았고 ‘극적인 메달’도 많았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극적인 사랑과 희망, 절망을 말이죠.

극음악의 희곡적 연극적 결합

글 유윤중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

음악은 연극과 결합해 강해졌다

극적(劇的)이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드라마틱(Dramatic)’ 이군요. 그렇습니다. ‘연극적’이라는 뜻입니다. TV 드라마가 아닙니다. 나는 관객으로 이쪽 객석에 앉아 있고, 건너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애정과 배신과 치욕과, 때로는 죽음의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걱정애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바로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극적인 모습들의 원형을 이루는 ‘연극’의 설계도, 즉 ‘희곡’에 바탕을 둔 음악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서양 음악, 즉 ‘클래식’의 모습을 세계 다른 문화권의 민속음악 또는 종족음악들과 다르게 바꾸어놓은 데는 ‘연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페라’라는, 연극과 음악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가 발명된 뒤 4세기가 넘도록 서양 음악가들은 노래와 관현악 반주를 통해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이렇게 연극과 음악이 밀착되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반(半) 천년’이나 지배한 것은 유례가 없죠. 물론 화음(harmony)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논리적 체계 등 다른 요인들도 서양음악을 다른 음악들과 다르게 만들었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음악은 여러 다른 장르의 연희(演戲)와 어울려 그



오페라 아이다의 한장면

효과를 높인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 문화에서 유독 ‘음악’과 ‘연극’은 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음악이 감정 표현의 도구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순수 기악곡에서나 해당될까말까 한 이야기일 뿐, 바로크 시대에도 고전주의 시대에도 작곡가들은 오페라에서 늘 ‘강력한 감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오페라, 극부수음악, 모음곡, 서곡

처음부터 옆길로 섰군요. 희곡이, 연극이 음악과 결합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를 띠면 될까요? 우선 앞서 소개한 대로, 음악과 노래로 연극을 진행하는 ‘오페라’가 있겠군요. 그러나 오페라 뿐만은 아닙니다. 희곡의 원형 그대로를 살려 연극을 공연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이 극의 분위기를 돋워주기 위해 무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말하자면 오늘날의 영화음악과 비슷한 역할이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 연주한 음악을 ‘극부수음악’(Incidental Music)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희곡에 여러 작곡가가 극부수 음악을 쓰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부수 음악이 연극 그 자체만큼, 또는 오히려 연극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극에 사용된 극부수 음악만을 모아서 연주하거나,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부분만을 묶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묶은 음악은 ‘모음곡’(Suite)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그리그 ‘페르 키타나 비제 ‘아를의 여인’ 모음곡이 극부수 음악에서 나온 모음곡입니다. 극부수 음악 외에 오페라의 중요 부분도 따로 모아 오케스트라만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모음곡이라고 부릅니다.

‘서곡’(Overture)이나 ‘전주곡’(Prelude)’도 있군요. 용어는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합니다. 오페라나 연극을 공연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객석의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 또는 극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음악으로 미리 힌트를 주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이런 서곡이나 전주곡은 독립되어 연주되기도 하고, 극부수 음악이나 오페라 또는 모음곡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서곡이나 전주곡이 따로 인기를 끌다 보니 작곡가들이 오페라나 극부수 음악을 쓰지 않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희곡에 대해 서곡이나 전주곡만 따로 작곡하기도 했죠.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프랑크 덕시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가 대표적

이렇게 장르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희곡들이 사랑받는 음악작품으로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흥미롭겠죠?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음악작품으로 재탄생한 희곡은 무엇일까요?

아마 맞추셨겠죠?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음악학자들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꼽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앞에 언급한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이 있고, 베를리오즈의 관현악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군요. 아 참, 발레도 빼놓아선 안 되겠네요. 프로코피예프의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습니다. 오페라를 꼽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리아 ‘아, 꿈속에 살고 싶어’로 유명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캐플릿 가문과 몬타규 가문’, 그냥 ‘로미오’ 또는 ‘줄리엣’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

무명 작곡가들의 오페라들을 다 합치면 줄잡아 4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엔 차이콥스키의 서곡에 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선율과 격렬한 결투의 묘사 부분을 듣고 싶어지네요.

괴테의 ‘파우스트’도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희곡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대신 청춘을 산 노학자가, 여성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을 받는 ‘인간 구원’의 이야기죠. 이 작품이 과연 통상의 희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괴테는 본디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으로 읽기 위한 희곡’(Lesedrama)로 썼기 때문이죠. 작품의 길이도, 그 무대의 규모도 실제 공연하기엔 터무니없이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시도는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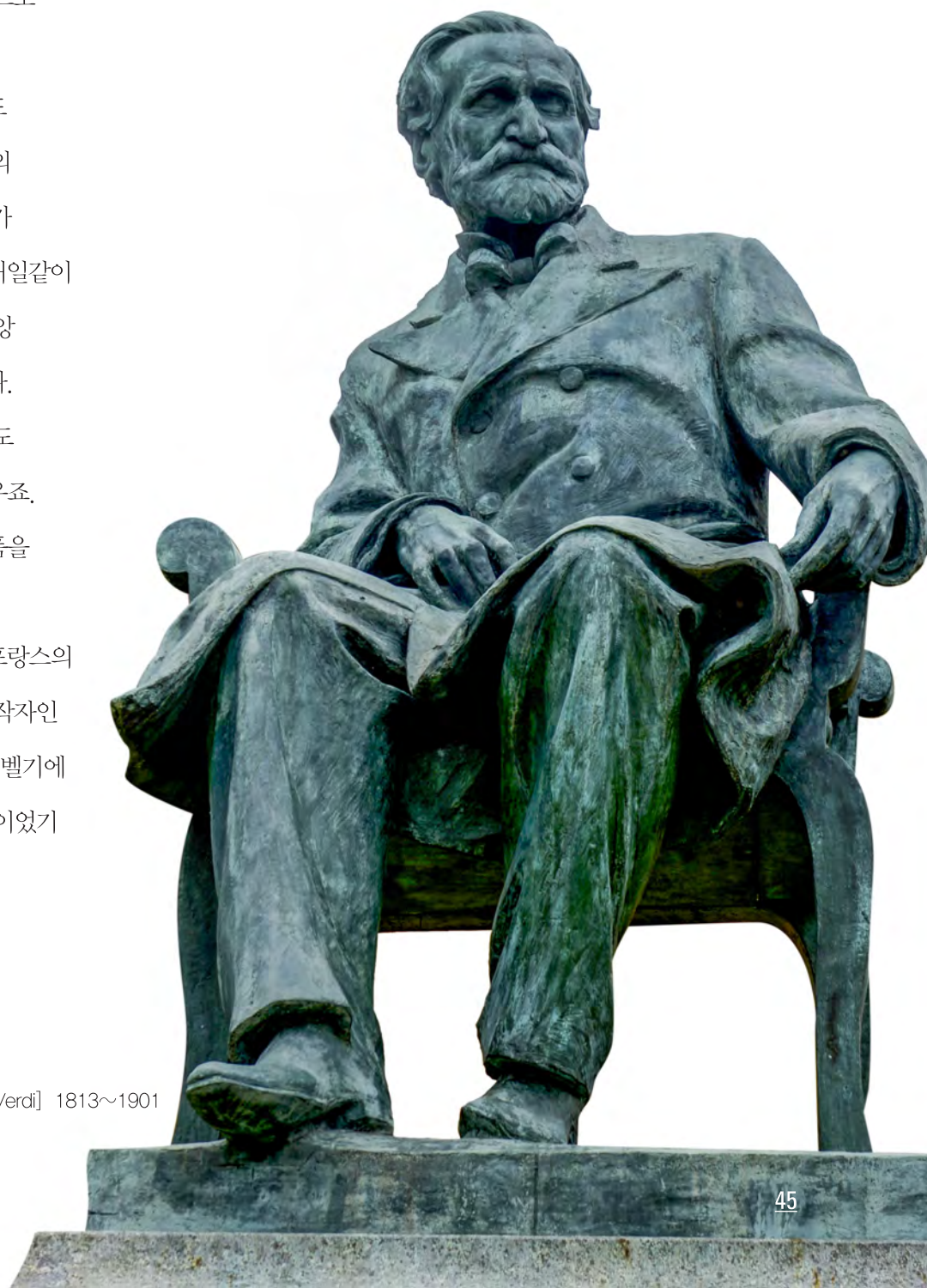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음악화한 작품으로는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보이토의 오페라 ‘메피스토펠레’가 대표적입니다. 대규모 관현악과 합창단을 동원하는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천벌(검벌)’도 있군요. 말리는 이 희곡 2부의 마지막 장면을 이른바 ‘1000인의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8번에 사용했습니다. 2중으로 배치된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까지 연주에 1000명이 동원된다는 거작입니다. 리스트도 같은 텍스트를 ‘파우스트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은 희곡이 음악작품으로 만들어진 희곡 작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셰익스피어입니다. 요정의 백일몽같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 ‘한 여름밤의 꿈’만 예를 들어도 멘델스존의 극부수음악 외에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인 멘델스존의 음악을 금지해서,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가 이를 대체할 극부수음악 작곡을 떠맡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사랑한 사나이 베르디

오페라의 제왕이었던 베르디도 셰익스피어를 사랑한 작곡가 중 하나였습니다. ‘오셀로(오텔로)’, ‘팔스타프’,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명 희곡들이 베르디의 손에서 오페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괴테 ‘파우스트’를 ‘메피스토펠레’라는 오페라로 만들었던 보이토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를 오페라 ‘오텔로’ 대본으로 각색했지만 자신보다는 베르디가 이를 음악화하는데 적역임을 깨닫고 베르디에게 작곡을 제안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베르디가 사랑한 또 한 사람의 희곡작가로는 독일의 문호 실러가 있습니다. 오페라 ‘돈 카를로스(원작명 돈 카를로)’, ‘군도’, ‘루이사 밀러(원작 ‘간계와 사랑’)’ 등이 실러의 희곡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오페라로 만들어져 원작 희곡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작품도 많습니다. 귀족의 전횡을 풍자한 보마르셰의 희곡 ‘세비야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각각 로시니와 모차르트가 오페라로 선을 보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 오페라극장에서 매일같이 공연되고 있죠.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도 원작인 빅토리아 사르두의 희곡 ‘토스카’보다 월등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작 희곡이 여러 가지 음악으로 모습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마테를링크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그런 경우죠. 시벨리우스와 포레가 극부수음악을 썼고, 드뷔시는 이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었고, 쇤베르크는 교향시를 선보였습니다. 시벨리우스는 북유럽 작곡가이고, 포레와 드뷔시는 남쪽 프랑스의 작곡가인 만큼 이 작품들의 음악적 색채도 대조적이죠. 원작자인 마테를링크가 북쪽이라고도, 남쪽이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벨기에 사람이었던 데다가, 작품 배경이 판타지적인 ‘가상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모가 가능했습니다.

여러 작품을 소개했지만 희곡에 바탕을 둔 음악들로 가장 사랑을 받는 곡을 들자면 비제의 모음곡 ‘아를의 여인’과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 귄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앞의 곡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약혼녀를 험담하는 바람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심약한 사나이 이야기이고, 뒷 곡은 고향에 사랑하는 이를 놓아둔 채 전 세계를 떠도는 풍운아 이야기입니다. ‘아를의 여인’에 나오는 고적한 플루트 솔로 ‘미뉴엣’이나, 페르 귄트의 연인 솔베이그가 하염없이 자신의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솔베이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한없이 마음이 적적해집니다. 이 가을에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글썄요, 글 서두에 적은 ‘극적(Dramatic)’이라는 표현에서는 먼 길을 걸어 다른 곳에 도착했군요!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

떠나보내며 간송문화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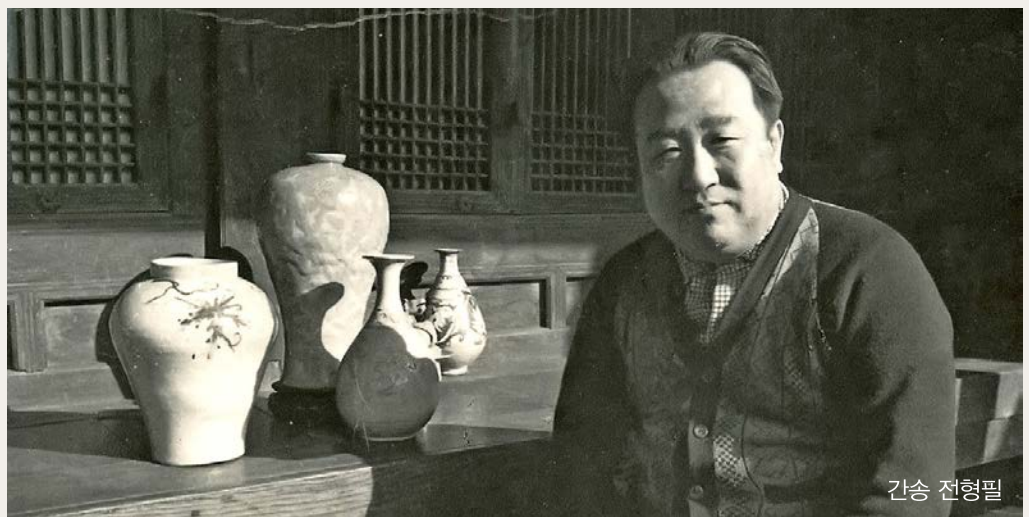
글 김석 KBS 기자
사진제공 간송미술문화재단

2008년에 방송된 <바람의 화원>이란 드라마 기억하시는지요? 소설가 이정명이 쓴 같은 제목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20부작 드라마로 방송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혜원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한 덕분(?)에 이런저런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 드라마가 남긴 뚜렷한 업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그림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궁금해했던 거지요. 그래서 <미인도>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찾아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그전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간송미술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지요.

간송미술관의 보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서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신윤복의 <미인도>를, 희대의 명작들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조용했던 미술관이 전시회 때마다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이 되면서 미술관의 설립자인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의 이름도 비로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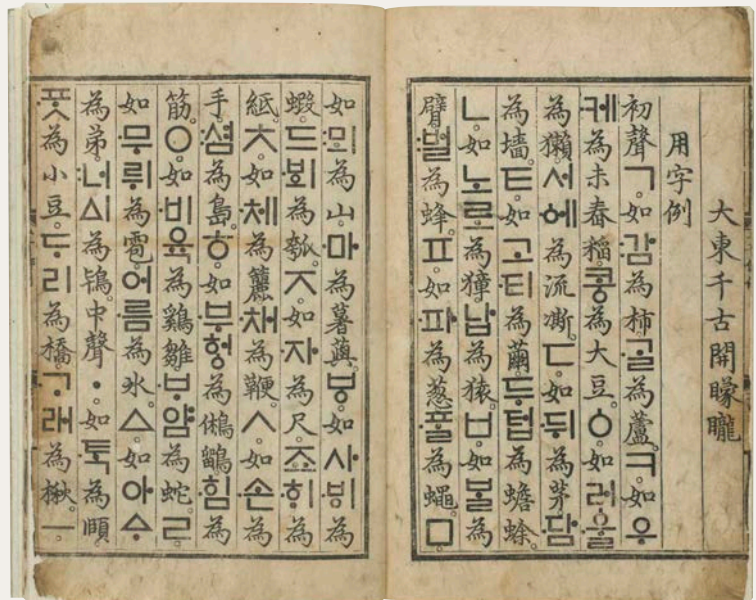
삼성미술관 리움+호암미술관, 호림박물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립 박물관으로 꼽히는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대수장가인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8년 8월 29일에 서울 성북동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박물관 '보화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간송 선생은 자신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사재를 털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을 사 모으는 데 일생을



간송 전형필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훈민정음 해례본

바친 분이지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국보 70호 훈민정음해례본, 조선 후기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 135호로 지정된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등 금쪽같은 보물들을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건 간송 전형필 선생의 숭고한 헌신 덕분입니다.

간송 선생은 우리 문화재를 지켜내고 미술관을 설립해 민족의 자산으로 만든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엄혹하기 짝이 없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온몸으로 지켜낸 간송 선생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지요.

우리 문화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을 끄는 자리에서 간송 선생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인입니다. 간송의 삶을 알고 나면 선생의 그 고결한 정신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고인의 혼이 깃든 미술관이건만 전시 때마다 관람객들은 불편했습니다. 땀별에서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전시 공간이나 시설은 좁고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작품을 감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좀처럼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간송미술관이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여는 전시회 때만



보화각



신윤복 <미인도>, 수묵채색화, 114×45.5cm, 간송미술관 소장

소장 유물을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수십 년을 변함없이 유지해온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송미술관이 유명해진 뒤로 폐쇄적인 전시 방식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공간에서 간송미술관의 귀중한 유물들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요.

이런 논의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변화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서울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복합 문화 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에 맞춰 간송미술관의 보물들을 이곳에 모셔와 전시하자는 계획이 극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당시 미술계에서 보기 드문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빛나는 유물들이 마침내 바깥세상으로 나들이를 하게 된 겁니다. 2014년 3월, 드디어 '간송 문화전'이란 이름으로 첫 외부 전시회가 역사적인 개막을 알립니다. 국보와 보물이 수도룩한 간송미술관 수장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입장료를 내야 하는 유료 전시회였지만 관람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가 간송미술관과 인연을 맺은 건 드라마 열풍이 불고도 한참이 지난 2011년 10월이었어요. 전시장에서 <미인도>를 비롯한 신윤복의 풍속화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봄, 가을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땡벌에서 출선 사람들의 대열에 기꺼이 합류했지요. 2014년 봄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선보인 여섯 차례의 간송 문화전은 당연히 모두 가보았고, 운 좋게도 이 가운데 세 번은 직접 취재해서 뉴스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취재하면서 절절하게 깨달은 것



신윤복 <월하정인>, 수묵채색화, 28.2×35.6cm, 간송미술관 소장

하나는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그림과 유물들이 나타나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저 많은 보물들을 어떻게 다 모았을까, 그 오랜 세월에도 어쩔 저렇게 온전하게 지켜져 왔을까,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풍속인물화로 꾸며진 간송 문화전 6부 전시가 8월 28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제 간송 문화전이라는 이름의 전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매번 똑같아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시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귀중한

문화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 문화재들을 어떤 이야기로 엮어서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진열장 안에 죽 펼쳐놓고 잘 감상하시오, 하는 전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전통과 현대가 서로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이게 되겠지요.

올 가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간송의 보물들과 현대미술의 만남이 어떤 새롭고 참신한 결과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술과 만남에 보내는 메시지

이 페이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술생활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등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magazine@ggac.or.kr

Monitor-G 활동가 김다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과도 많이 친숙해졌고, <예술과 만남>이라는 매거진도 만나게 되었다. 앞으로 만나 볼 다양한 공연과 이미 만나 본 공연, 경기도립예술단 소식들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곤 했다.

예술에서도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누군가들의 모습을 'Interview'와 'Story' 파트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8월 10일에 관람 한 경기필하모닉의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공연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호에선 특히 경기도립국악단의 소식이 인상 깊었다. '치세지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평소 국악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었는데, 국악의 한계를 넘어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경기도립국악단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참관을 와도 좋다는 문자에 부랴부랴 갔었던 기억이 난다. 전공자로서도 경기도민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예술을 압박하는 졸속한 행정에 화가 났다. 논문들과 주장들을 다시 집에서 읽어보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예술 분야에선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주장들을 정리해주었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독자들에게도 정보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더 발전하는 경기도립예술단, 더 좋아질 경기도문화의전당, 더 나아질 <예술과 만남>을 기대해본다.



연회비

3만원으로 누리는 30만원의 혜택

구분	내용	할인받은 금액(원)
초대	예술단공연 20,000원x4매	80,000
예술단공연	평균관람가 20,000원x평균할인률 30% = 6,000원(6,000원 x 4회 x 2인 = 48,000원)	48,000
기획공연	평균관람가 65,000원x평균할인률 20% = 11,000원(11,000원 x 4회 x 2인 = 88,000원)	88,000
대관공연	평균관람가 70,000원x평균할인률 10% = 7,000원(7,000원 x 4회 x 2인 = 56,000원)	56,000
주차	공연 관람 시 무료주차 x 18회 x 2,000원	32,000
할인받은 금액 계		304,000

※초대권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문자 수신 후, 전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구분	종류	연회비	할인받은 금액(원)
개인회원	일반	3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 기획 공연 초대권 연 4매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기획 · 공연 및 정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10~30% 할인 (공연당 할인 매수 4매)
	골드	5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 기획 공연 초대권 연 4매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기획 · 공연 및 정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20~50% 할인 (공연당 할인 매수 6매)

공동 혜택

공연할인의 경우
일부공연 제외될 수 있음

- 격월간지 <예술과만남> 우편발송
- 주차요금 면제(카드소지, 공연관람 시)
- 교육프로그램 '예술가꿈' 강좌 수강료 5% 할인
- 전화, 인터넷 예매수수료 면제
- E-mail, SMS 문자 뉴스레터 발송

가입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
기 간: 회원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가입방법: 웹회원 가입/로그인 후
아트플러스 회원가입(오프라인 및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담당
TEL 031-230-3242 FAX 031-230-3469
EMAIL artplus@ggac.or.kr
※회원 안내 및 기타 회원 관련 모든 문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타 공연장 나들이

오페라카르멘
가장 위험한 사랑

O P E R A C A R M E N

2016. 11. 17~2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VIP 22만원 | R 15만원 | S 8만원 | A 5만원 | B 3만원

지휘 성시연 | 연출 정갑근 | 무대미술 오윤균 | 의상 이재희 | 조명 최 욱 | 무대감독 이현우
카르멘 엘레나 막시모바 / 양계화 | 돈 호세 한윤석 / 허영훈 | 에스카미요 아리온바타르 간바타르 / 오승용 | 미카엘라 윤정남 / 이지혜 | 주니가 함석현 | 모랄레스 문영우 | 프라스키타 황윤미 / 장수민
메르세데스 황혜제 / 김윤희 | 단 카이로 오정윤 / 김재일 | 레멘다도 문대균 / 박창준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남양주시립합창단 / 성남오페라합창단

www.snart.or.kr

예술과만남 NEWS

1 윤리경영강화를 위한 직무청렴계약 체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재도약을 위한 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8월 25일 임직원이 함께 윤리경영강화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헌장'을 제정·공포했다. 직무청렴계약은 경영진의 청렴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장과 본부장간 계약을 체결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리헌장'에는 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윤리경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앞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내 포털 그룹웨어에 '청렴콘텐츠' 링크를 시행하고 전 직원 청렴·윤리 서약 등 다각도의 실천방안을 추진한다.



2 전통음악의 新 르네상스를 열 '전국 도립국악단 협의회' 발족

'전국 도립국악단 협의회'가 9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 중심의 문화권을 벗어나 전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류하여 미래 국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립국악단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하며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경기도립국악단 최상화 단장이 추대됐다. 협의회를 통해 우수작품 교류, 단체 운영 및 공연정보 교환,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등 교육사업과 페스티벌 공동개최에 협력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3 피부색은 달라도 가야금으로 느끼는 '다름'의 가치

경기도립국악단이 문화 혜택이 적은 경기북부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펼친다. 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다(多)야금 앙상블'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다채로운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직접 제작 한 강의 교재로 기본 주법부터 단계별 연주법까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2월 21일에는 가평 설악중학교에서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와 친구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베트남, 터키 등 각 나라의 민요를 배우는 장을 열며, 청소년이 좋아하는 '픽 미 업', '벚꽃엔딩' 등 케이팝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흥미로운 시간을 통해 우리 음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배움의 계절, 가을 ‘예술가’의 꿈을 키운다

4

내 안의 예술가를 깨워라!
경기도문화의전당 가을시즌
예술 아카데미의 열기가 뜨겁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국악당에서
한국무용과 국악을 비롯한 총 72개
강좌가 개설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예술로
일상의 행복을 더하는 즐거운 배움이
가득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카데미.
경기도립예술단 단원 및 전문 강사진과
함께 숨겨왔던 예술가의 꿈을 키워보자.



경기도립극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제작

5

경기도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으로
제작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소리책’프로젝트는 문화를 통한 나눔
및 소통을 고민해온 도립극단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준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금까지
이시원작가의 희곡 ‘녹차정원’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한 4권의
소리책이 제작되어 약 25만명 되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이번 녹음은 10월 14일(금)
과 15일(토)에 진행하며, 11월 초에
103개소 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예만이가 시원하게 쏜다! 〈예술과 만남〉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6

10월 한 달간 경기도문화의전당
정기간행물 <예술과 만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다양한 공연
소식과 문화 트렌드를 소개해 온
<예술과 만남>에 대한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에 응한 독자
중 2명을 추첨하여 가족 외식권을
증정하며, 연극 <늘근도독이야기>에
5쌍을 초대한다.

조사기간: 2016. 10.1(토) ~ 10.31(월)

조사대상: <예술과 만남> 구독자

참여방법: 우편,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상품

- 가족 외식권 2명
- 연극 늘근도독이야기(12.10(토) 3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5쌍(1인 2매))
- 선착순 100분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증정 (단, 중복증정 불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외 [서호공원] 경기도립무용단 경기 옛길 걷기대회 외 [능북초교]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문화나눔31
02	03	04	05 대 경기도립무용단 노인의 날 행사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외 [파주군부대]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06 외 [석운 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립극단 소풍	07 외 [이천 대서초교] 경기도립극단 맹진사댁 경사 외 [봉수당] 경기도립무용단 봉수당 진찬례	08 외 [경기도박물관] 경기팝스앙상블 퓨전콘서트 외 [봉수당] 경기도립무용단 봉수당 진찬례
09	10 소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정지원 피아노 독주회 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경기도립극단 4번 출구	11 외 [양주 독정초교]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31	12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외 [굿모닝하우스] 경기도립극단 소풍	13 소 브런치 콘서트 〈엔니오 모리코네 인 재즈〉 외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립극단 소풍	14 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외 [군포 도장중학교]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31 외 [수원화성행궁 유여택] 경기도립무용단 달빛 동행	15 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소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외 [수원화성행궁 유여택] 경기도립무용단 달빛 동행
16 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소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외 [수원화성행궁 유여택] 경기도립무용단 달빛 동행	17 외 [김포양곡중학교] 경기팝스앙상블 퓨전콘서트	18	19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경기도립극단 여보, 비온다	20 외 [심석초교] 경기팝스앙상블 퓨전콘서트	21 대 경기필하모닉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외 [롯데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22 대 2016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Picture me 외 [롯데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23	24 외 [군포 관모초교] 경기도립극단 경기문화나눔31	25 외 [수원 버드네 노인복지관] 경기도립극단 경기문화나눔31	26 소 문화가 있는 날 건반위의 대화 작은 음악회	27 외 [의왕 사랑채노인복지관] 경기도립극단 소풍	28 외 [연천9293부대]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29 소 친절한콘서트 스타트재즈 친절한 콘서트
30	31					

대 대극장	소 소극장	갠 빛나는갤러리	갠 소담한갤러리	흥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 꿈꾸는컨벤션센터	썬 썬큰무대	신 신나는야외극장	외 외부공연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필하모닉 〈한여름 밤의 꿈〉(수원), 친절한콘서트 〈스타트재즈〉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브런치콘서트 〈엔니오 모리코네 인 재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스테디셀러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경기필하모닉 〈한여름 밤의 꿈〉, 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Picture me〉,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친절한콘서트 〈스타트 재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외 [포천]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02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03	04 외 [성분도단기보호시설]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외 [대구오페라하우스] 경기필하모닉 카르멘	05 외 [대구오페라하우스] 경기필하모닉 카르멘
06	07	08	09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외 [파주흑표범부대]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10	11	12 외 [교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필하모닉 '쇼스타코비치' vs 프로코피예프'
13	14	15 외 [김포]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16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17 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필하모닉 카르멘	18 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필하모닉 카르멘	19 대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20	21	22	23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24 스 친절한 콘서트 강충모의 All about Piano 	25 대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26 스 친절한 콘서트 합합 컬처 콘서트 
27	28	29	30 흥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외 [연천군부대]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문화나눔 31			

대 대극장	소 소극장	갠 빛나는갤러리	갠 소담한갤러리	흥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 꿈꾸는컨벤션센터	썬 썬크무대	신 신나는야외극장	외 외부공연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친절한 콘서트 <강충모의 All about Piano>,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친절한 콘서트 <합합 컬처 콘서트>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국악아동극 <아빠 월드>, 경기도립국악단 <세계를 품다>, 친절한콘서트 <강충모의 All about Piano>, 경기도립무용단 <상상(想相)>, 친절한콘서트 <합합 컬처 콘서트>								



마법같은 순간, 지휘라는 마법의 순간은 이렇습니다.
지휘자가 무대로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지요
다들 조율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 소음들 앞에서 지휘자가 아주 작은 동작을 취합니다.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게

그러면 갑자기 혼란 속에 질서가 생기고
소음은 음악이 됩니다.

- 이타이 탈감(Itay Talgam) 2009 TED 강연 중에서 -